



K-라면
수출 신기록
고용·생산 혁신
L1



Life

국내 뷰티업계
웰니스 육성
북미 경쟁력 강화
L2



기술혁신에 현지화로 ‘날개’… 해안으로 글로벌 전력 정조준

CEO 와칭

구 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기술 선점과 현지화를 중시하고 인재와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기업 성장의 핵심으로 삼아 온 경영인이다. 특정 국가와 단일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해외 시장을 함께 넓히며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전력기업 도약을 이끌고 있다.

글로벌 사업에서는 전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생산·영업·서비스를 현지 수요에 맞추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을 병행했다. 특히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나는 북미에 생산·연구개발(R&D)·설계·서비스 거점을 구축하며 현지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 같은 사업 다각화와 해외 시장 확대는 실적으로 이어졌다. LS일렉트릭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조5770억원, 영업이익은 17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북미 매출도 분기 최대인 약 4000억원을 기록했다. 미래 실적을 가능할 수 있는 수주잔고 역시 2분기 말 7조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1조4000억원 늘었다.

구 회장은 북미 현지화와 미래 전력기술 육성을 이어가 2030년 매출 10조원과 해외 매출 비중 70%를 달성하고 미국 ‘톱4’ 전력기업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LS일렉트릭 유타’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가운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오른쪽 세번째) 등이 지난 2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렉스 코리아 2026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대학 교수서 기업인으로 경영 참여
기술 육성, 글로벌 사업 확대 이끌어
해외매출 비중 30%→50%로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에 북미 공략
美 거점 구축… 지난해 매출 1조 달성
매출 10조·해외매출 비중 70% 목표

초고압·AI·DC 등 미래동력 육성
전력계통 전반 포트폴리오 다각화

핵심자산은 ‘인재’… 신규 채용 지속
수평적 팀 문화 ‘애자일’ 정착 앞장

◆구평희 전 E1 명예회장 삼남…교수 거쳐 경영 참여

구 회장은 1957년 서울에서 구평희 전 E1 명예회장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업을 마친 뒤에는 대학 강단에 섰다. 1993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1997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경영과 기업 전략을 가르쳤다. 기업 경영에 참여한 것은 2005년이다. LS산전 관리본부장 부사장으로 입사한 뒤 2007년 관리본부장 사장, 2008년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 사장, 2010년 대표이사 CEO 부회장을 거쳤다. 2013년 LS그룹 산 전사업 부문 부회장에 이어 2015년 LS산전 대표이사 CEO 회장에 올랐다. 2020년 사명이 LS일렉트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대표이사 CEO 회장을 맡고 있다.

구 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뒤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에 힘을 쏟았다. 취임 초기 30% 수준이던 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미국 UL 인증 취득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진출 등을 추진해 사업 영역

을 넓혔다.

전력·산업기술 분야의 대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초대 회장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북미 매출 1조원 돌파…텍사스·유타 거점 확대

구 회장이 글로벌 사업의 핵심 시장으로 선택한 곳은 북미다.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에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미국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판매 확대에 맞춰 생산과 연구개발, 설계, 시공, 기술 지원, 애프터서비스까지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의 ‘베스트럽 캠퍼스’와 유타주의 ‘LS일렉트릭 유타’를 양대 거점으로 구축했다.

지난해 4월 준공한 베스트럽 캠퍼스는 배전 전력기기 생산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설계,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북미 사업 지원 거점이다. 유타에서는 2022년 인수한 현지 배전시스템 기업 MCM엔지니어링II를 기반으로 배전반 생산과 배전시스템 설계·시공 역량을 확보했다.

LS일렉트릭은 유타 거점에 1억6800만달러(약 2500억원)를 투자해 배전반 생산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릴 예정이다. 공장 규모도 1만3223㎡(약 4000평)에서 7만9338㎡(약 2만4000평)로 6배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생산동 3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두 거점을 중심으로 북미 공급체계를 강화해 전체 해외 매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까지 현지에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북미 전력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을 방침이다.

◆저·중압서 AI·DC·ESS까지…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구 회장은 2005년 LS일렉트릭의 전신인 LS산전에 합류한 이후 저압·중압 배전기기의 경쟁력을 초고압 변압기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으로 확장했다. DC 전환 기술과 디지털 전환(DX), ESS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저압·중압 배전기기와 배전반, 초고압 변압기를 아우르는 전력 계통 전반의 솔루션 역량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과 DC 전환 기술, DX, ESS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에는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고효율 배전 솔루션과 전력관리시스템을 공급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배전시스템은 일반 배전 사업보다 기술 진입장벽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DX를 기반으로 고객의 전력·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과 에너지 최적화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의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확산으로 DC 전환이 빨라지는 데 맞춰 관련 제품군도 확보했다. DC 차단기와 DC/DC 컨버터, 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직류 전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주요 제품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저압직류배전(LVDC)용 차단·개폐기는 글로벌 톱3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태양광과 ESS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센터의 800V DC 아키텍처 전환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C 제품군을 활용한 ESS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천안 DC팩토리에서 차세대 ESS용 PCS인 ‘G2’ 양산을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채용·보상 확대하고 권한 분산…인재 중심 경영

구 회장이 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꼽는 것은 인재다. 사업을 주도할 우수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2006년부터 공채 제도를 유지하며 젊은 인재를 꾸준히 채용해 왔다.

LS일렉트릭은 매년 사무직 인력의 10%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에는 비정규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도 높였다.

북미 전력·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에 맞춰 임직원의 성과와 기업가치를 연계한 보상 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옵션을 지급해 사업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한다.

구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Agile)’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수평적인 팀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 조직에 권한을 분산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구 회장은 “기업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사람이며 사업을 주도할 우수 인재 확보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축구협회 프로심판평가협의체 개편…비심판 출신 40% 이상 확대
▲‘105경기 재편성’ 2026시즌 KBO 정규시즌 10월 7일 종료
/사진 뉴스시스

▲샌디에이고 송성문, 타율 0.202 남기고 마이너 리그 강등
▲이창동 ‘가능한 사랑’, 美 아카데미상 한국 대표로 출품

▲22개국 46명 작가 부산으로…2026 부산비엔날레 29일 개막
▲신시컴퍼니, 글로벌 신작 뮤지컬 ‘네로’ 런던 트라이아웃 개막